

간호대학생의 자원봉사지속의지에 미치는 융합적 영향요인

김민숙¹, 윤순영^{2*}

¹백석문화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²백석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Convergence Influence Factors on Nursing Students' Willingness to Volunteer

Min-Suk Kim¹, Soon-Young Yun^{2*}

¹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Baekseok Culture University

²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Baekseok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도덕성, 봉사업무적절성, 봉사지속의지의 정도를 파악하고 봉사지속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이 연구는 2018년도 11월에서 12월까지 수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 수집은 일개대학 간호대학생 중 연구에 동의하고 설문지를 완성한 17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4.0을 이용하여 t-test, ANOVA 및 Scheffe 사후검정,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산출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도덕성, 봉사업무의 적절성, 봉사기간, 적극성이 지속의지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지속적인 봉사를 위해 전공과 연계되고 자율적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봉사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제언한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자원봉사, 도덕성, 적절성, 지속의지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degree of mortality, appropriateness and continuance willingness of voluntary activities in nursing students an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ir continuance willingness of voluntary activities. This study was carried out from November to December 2018 a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among 174 university nursing students who agreed to the research and completed the questionnaire. The data were analyzed by t-test, ANOVA and Scheffe post-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calcu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24.0.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morality, service appropriateness, service period, and aggressivenes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continuance willingness. It proposes that a volunteer program that can engage with the majors and participate voluntarily and positively for the continuous service of nursing students.

Key Words : Nursing student, Voluntary service, Mortality, Appropriateness, Continuance willingness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자원봉사는 타인에게 유익함을 주기위한 목적을 가지

고 조직에 의해 수행되지만 그 행위에 대해서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행위이며[1]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하는 활동이다[2]. 또한 봉사활동은 인간관계를 다양하게 경험하게 하고 타인의 감성을 이해하여 자신의

*Corresponding Author : Soon-Young Yun(syb3000@bu.ac.kr)

Received March 6, 2019

Accepted May 20, 2019

Revised April 28, 2019

Published May 28, 2019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증가시킨다[3].

대학은 교육과 연구뿐만 아니라 봉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대학생의 사회봉사를 전담해서 관리하는 부서를 만들어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장려정책으로 봉사활동 참여를 장려하여[4] 졸업 후에도 봉사활동을 지속하여 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5].

대학 시기의 자원봉사활동은 인격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잠재능력을 실현시킬 뿐만 아니라[6]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봉사를 지속할 수 있는 근간이 되기에 중요하다[7]. 사회발전에 소중한 의의를 지니는[8] 대학생의 자원봉사는 강의실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여 바람직한 인간으로 성장함에 도움을 준다[9]. 대학생은 다른 자원봉사자에 비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활동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타인과의 유대관계를 통하여 사회적 책임감이 형성되기도 한다[10].

자원봉사의 참여기간은 도덕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11] 대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은 국가와 사회에서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감과 이타성을 중요시하는 도덕성을 갖춘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좋은 경험이다[10]. 간호대학생은 심리적, 신체적, 영적으로 불편한 대상자를 간호해야 하는 예비간호인으로서, 어느 정도의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사회개선을 체험함으로써 정서적으로 성숙해 질 수 있는 사회봉사를[12] 지속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를 고려하여 적절한 업무에 배치하고 봉사활동업무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등 봉사자를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13]. 이는 전공과 관련된 형태로 봉사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14]. 간호대학생 중에 전공을 선택하게 된 동기가 소극적일 때 학교생활에 대한 부적응이 높아져 중도에 포기하기도 하는데[15], 전공과 연계된 봉사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16] 전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졸업이후의 진로에 대하여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 간호대학생이 참여하고 있는 봉사업무가 적절한지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회인으로 성장시켜야 할 것이다.

대학생들에게 있어 봉사활동은 인간존중을 바탕으로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 이해를 돕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경험을 제공하여 인간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알도록 한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 자원봉사의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온 것은 자원봉사자가 6개월 이내에 봉사활동을 그만두는 지속성의 문제이다[8]. 대학생들은 소속대학이 운영하는 학점, 졸업여건,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나[17]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은 의도적인 계획을 가지고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이며[18], 일반적으로 얼마나 자주하는가, 얼마나 오래하는가, 하고자하는 의지는 어떠한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등과 관련된다[19]. 자원봉사의 지속은 자원봉사 자원의 손실을 감소시키고 사회경험을 축적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대학생들은 단기적이거나 일회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13]. 이는 봉사활동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20].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있었으나[4,13,21,22],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도덕성, 업무의 적절성과 봉사지속의 지와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는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도덕성, 봉사업무적절성, 봉사지속의지 간의 상관관계와 봉사지속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봉사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봉사지속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봉사관련 특성에 따른 봉사지속의지의 차이를 확인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도덕성, 봉사업무적절성, 봉사지속의지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봉사지속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도덕성, 봉사업무적절성, 봉사지속의지를 조사하고, 봉사지속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C시 일개 대학교 간호학과 학생을 편의 추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표본 크기는 Yang[29]의 연구를 근거로 하였으며 G*Power 3.1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유의수준 0.05, 검정력 0.8, 효과크기 0.15, 독립변수 11개를 입력하여 표본수를 산출한 결과 152명으로 나타났다. 총 180개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미완성된 6개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74개의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2.3 연구 도구

도덕성은 Cho[23]가 제작·활용한 설문문항을 참고하여 대학생수준에 맞게 Seo[11]이 재구성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본 도구는 16문항으로 이타성, 사회적 책임감 2개의 하부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매우 그렇다' 5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은 16점에서 최고 80점의 범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도덕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Seo[11] 연구의 Cronbach's alpha는 .73이었으며 본 연구는 .85이었다.

봉사업무의 적절성은 Kwon[24]이 개발하였으며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우 그렇다' 5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은 5점에서 최고 25점의 범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봉사업무가 적절한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Cronbach's alpha는 .70이었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는 .87이었다.

봉사지속의지 측정도구는 Bai[25]가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우 그렇다' 5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은 5점에서 최고 25점의 범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봉사지속의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Cronbach's alpha는 .92였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는 .94이었다.

2.4 자료 수집방법

본 자료는 2018년 11월15일부터 12월15일까지 일개 대학교 간호대학생 4개 학년으로부터 수집되었다.

2.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4.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봉사관련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특

성에 따른 봉사지속의지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고, 사후 검증은 Scheffe방법을 이용하였다. 도덕성, 봉사업무적절성, 봉사지속의지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이들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봉사지속의지에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2.6 윤리적 고려

자료 수집 시 먼저 해당교수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허락을 받았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고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은 후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평균 10~15분 정도 소요되었다.

2.7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1개 대학을 편의 추출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및 봉사관련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나이는 19-45세 사이이며 평균 21.71세이었다. 여학생이 83.3%(145명)이었으며, 54.6%(95명)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 봉사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애타심과 취업이 각각 24.2%(44명), 23.1%(42명)로 1위, 2위를 차지하였으며, 대상자의 54%(94명)가 동아리나 소모임 형태로 참여하였다. 봉사기간은 1개월~1년 미만이 가장 많았으며 (46%), 노력봉사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8.3%). 57.5%(100명)가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으며, 20.7%(36명)는 보통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74)

Characteristics	Categories	M±SD(Range) or N(%)
Age(yrs)		21.71±2.89 (19-45)
Gender	Female	145(83.3)
	Male	29(16.7)
Grade	1st	32(18.4)
	2nd	43(24.7)

	3rd	43(24.7)
	4th	56(32.2)
Religion	Yes	95(54.6)
	No	79(45.4)
Participation motivation of voluntary activities	Acquisition of credit	32(17.6)
	Thinking about others	44(24.2)
	Various life experiences	28(15.4)
	Interest in society	3(1.6)
	Rewarding leisure	10(5.5)
	Religious conviction	5(2.7)
	Employment	42(23.1)
	Other	10(5.5)
Participation route of voluntary activities	Personally	38(21.8)
	Friend	22(12.6)
	Circles	94(54.0)
	Service subject	13(7.5)
	Other	7(4.0)
Participation period of voluntary activities	<1month	27(15.5)
	≥1month~<1year	80(46.0)
	≥1year~<3years	46(26.4)
	≥3years	21(12.1)
Volunteer Activities	Effort service	84(48.3)
	Learning and life guidance	41(23.6)
	Housework support	5(2.9)
	Recreation	9(5.2)
	Public relations activities	8(4.6)
	Service abroad	7(4.0)
	Other	20(11.5)
Volunteer attitude	Very active	23(13.2)
	active	100(57.5)
	usually	36(20.7)
	passive	11(6.3)
	Very passive	4(2.3)

3.2 도덕성, 봉사업무적절성, 봉사지속의지

대상자의 도덕성, 봉사업무적절성, 봉사지속의지 점수는 Table 2와 같이 각각 57.54점, 18.07점, 18.63점이었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Major Variables

Variable	M±SD	Range
Morality	57.54±7.28	34-80
Appropriateness	18.07±2.96	8-25
Continuance willingness	18.63±3.62	5-25

3.3 봉사지속의지의 인구사회학적 및 봉사관련특성에 따른 차이

인구사회학적특성과 봉사관련특성에 따른 봉사지속의지를 파악한 결과 Table 3과 같이 학년(F=6.46, $p<.001$), 참여동기(F=4.24, $p<.001$), 참여기간(F=6.37, $p<.001$), 적극성(F=17.99,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봉사지속의지는 1학년이 3학년, 4학년에 비해 높았으며, 보람된 여가를 위해 참여한 집단이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 참여한 집단에 비하여 높았다. 그리고 1년 넘게 봉사를 하고 있는 집단이 1개월도 안된 집단보다 봉사지속의지가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집단이 보통으로 참여, 소극적으로 참여, 매우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집단에 비해 높았다. 그리고 적극적인 집단은 보통으로 참여하거나 매우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집단에 비해 봉사지속의지가 높았고 보통으로 참여하는 집단은 매우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집단에 비해 봉사지속의지가 높게 나타났다.

Table 3. Differences of Continuance Willingn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74)

Characteristics	Categories	Continuance Willingness	
		M±SD	t/F(p) Scheffe
Gender	Female	18.74± 3.30	0.66(.514)
	Male	18.10± 4.95	
Grade	1st ^a	96.60±16.27	6.46(<.001) a)c, d
	2nd ^b	88.90± 8.46	
	3rd ^c	80.50±14.87	
	4th ^d	83.00±13.16	
Religion	Yes	19.06± 3.46	1.73(.085)
	No	18.11± 3.75	
Participation motivation of voluntary activities	Acquisition of credit ^a	16.97± 3.59	4.24(<.001) a)e
	Thinking about others ^b	19.77± 3.18	
	Various life experiences ^c	19.36± 4.01	
	Interest in society ^d	19.00± 1.00	
	Rewarding leisure ^e	21.70± 2.58	

	Religious conviction ^f	19.40± 4.03	
	Employment ^g	18.00± 2.86	
	Other ^h	16.00± 4.57	
Participation route of voluntary activities	Personally	18.42± 3.49	1.51(.200)
	Friend	18.82± 2.97	
	Circles, Small	18.98± 3.64	
	Service subject	18.00± 3.62	
	Other	15.71± 5.15	
Participation period of voluntary activities	<1month ^a	16.56± 3.82	6.37(<.001) a(c,d)
	≥1month~<1year ^b	18.51± 2.99	
	≥1year~<3years ^c	19.04± 3.25	
	≥3years ^d	20.86± 4.85	
Volunteer Activities	Effort service	18.55± 2.99	1.54(.167)
	Learning and life guidance	19.66± 3.62	
	Housework support	18.20± 2.95	
	Recreation	17.78± 2.33	
	Public relations activities	17.13± 3.94	
	Service abroad	20.29± 5.46	
	Other	17.40± 5.19	
Volunteer attitude	Very active ^a	21.22± 2.96	17.99 (<.001) a)c,d,e b)c,e e(a,b,c,d)
	active ^b	19.18± 3.32	
	usually ^c	17.06± 2.15	
	passive ^d	16.91± 2.77	
	Very passive ^e	9.00± 4.54	

3.4 변수간의 상관관계

봉사업무의 적절성은 Table 4와 같이 도덕성과($r=.46$ $p<.001$)과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봉사지속의지는 도덕성($r=.58$ $p<.001$), 봉사업무적절성($r=.47$ $p<.001$)과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Table 4. Correlations Among Observed Variables

	Morality $r(\rho)$	Appropriateness $r(\rho)$
Appropriateness	.46(<.001)	
Continuance Willingness	.58(<.001)	.47(<.001)

3.5 봉사지속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학과 학생의 봉사지속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 중에 봉사지속의지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학년, 참여동기, 봉사기간, 봉사태도와 봉사지속의지와 유의한 상관관계

를 나타낸 도덕성, 봉사업무적절성을 독립변수로 회귀모델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디자인된 회귀모델의 공차는 .75에서 .95사이로 산출되었으며 분산팽창인자 범위는 1.05-1.32이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본 회귀모델이 다중공선성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잔차의 독립성 검증을 위해 실시한 Durbin-Watson값 역시 1.87로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6개 변수들은 봉사지속의지 총변동의 45.4%를 설명하였으며 ($F=23.11$, $p<.001$) Table 5와 같이 예측변수 6개 중 도덕성, 봉사업무적절성, 봉사기간, 봉사활동적극성 등 4개 변수가 봉사지속의지를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덕성이 높을수록, 봉사업무가 적절할수록 봉사지속의지가 높았다. 그리고 봉사기간이 1년 이상인 집단이 1개월 미만인 집단에 비해 봉사지속의지가 높았다. 또한, 봉사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집단이 보통으로 참여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집단에 비해 봉사지속의지가 높았으며 봉사에 적극적인 집단은 보통인 집단에 비해 봉사지속의지가 높았다. 그러나 매우 소극적으로 봉사에 참여하는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봉사지속의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Factors Affecting Continuance Willingness

Variable	β	t	ρ
Grade	.084	1.43	.152
Participation motivation of voluntary activities	-.107	-1.82	.069
Participation period of voluntary activities	-.138	-2.34	.020
Volunteer attitude	.136	2.24	.026
Morality	.428	6.57	<.001
Appropriateness	.205	3.11	.002
R ² =.454 F=23.11			<.001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봉사지속의지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봉사관련 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고 도덕성, 봉사업무적절성간의 상관관계와 봉사지속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함으로써 졸업 후에도 사회봉사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도덕성 점수는 57.54점으로 보통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위생과 학생의 사회성과 도덕성을 연구한 Lee[26]의 연구나 다양한 계열을 전공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봉사활동 경험여부에 따른 시민성, 사회성, 도덕성을 연구한 Seo[11]의 연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도덕성과 직업가치관을 연구한 Park[10]의 결과와는 유사한 수준이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도덕성이 타계열의 대학생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타성과 사회적 책임감의 소양을 가지고 있는 간호대학생에게 사회봉사활동은 도덕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좋은 분야라고 생각한다. 신체적,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대상자에게 간호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봉사활동을 수행한다면 전공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이는 학교생활의 적응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리라 여겨진다.

본 연구대상자의 봉사업무적절성은 18.07점으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나 Park[27]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봉사업무가 부담되거나 과하지 않고 적절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경우에 54%가 대학동아리나 소모임을 통하여 국가에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허가한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봉사센터와 연계되어 있어, 봉사센터가 대학생들에게 적절한 업무가 주어지는 기관으로 잘 연계시켜주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시간만 채우는 봉사활동이 아니라 내용면에서 간호 대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봉사기관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확보하고 기관의 운영철학이나 봉사를 할 대상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참여하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봉사지속의지는 18.63점으로 보통이상으로 나타나 대학생의 참여동기가 봉사지속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Lee & Cho[4]의 연구의 17.83점이나 힐링자원봉사의 봉사지속의지에 대하여 조사한 Lee[13]의 연구 17.25점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Lee & Cho[4] 연구의 대상자는 일개 대학교의 사회봉사센터에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경험한 대학생이었고 Lee[13]연구의 대상자는 경기도 6개시의 사회봉사기관에서 봉사지속의지를 보이고 있는 대학생이었다. 이들 연구의 봉사지속의지도 보통 이상이었다. 도덕성과 마찬가지로 타계열대학생에 비하여 간호대학생의 봉사지속의지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간호 대학생이 봉사를 지속할 수 있도록 봉사에 대한 관심을 갖고 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1학년이 3학년이나 4학년에 비해 봉사지속의지가 높게 나타났다. 3학년이나 4학년의 경우에는 1학년에 비해 학업에 대한 부담과 임상실습 등

으로 봉사시간을 갖기 힘든 여건에 놓여있으며 졸업이수를 위한 봉사시간이 확보된 학생이 많은 반면에 1학년은 그렇지 않은 학생이 더 많은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는 졸업 후 사회인으로서의 봉사활동지속여부가 불확실함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고 고학년의 봉사지속의지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봉사관련특성 중에는 봉사참여동기, 봉사기간, 봉사에 대한 태도에 따라 봉사지속의지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참여동기에 따라 지속의지 정도가 달라지는 Kim & Lee[28]의 연구와 유사하였으며, Hong[9]의 연구에서는 6개월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한 집단이 지속의지가 높아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Lee[13]의 연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이 봉사지속의지가 높아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봉사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학점이나 졸업이수를 위한 봉사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서는 봉사이야 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봉사지속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도덕성, 봉사업무적절성, 봉사기간, 적극성이 확인되었다. 간호대학생의 도덕성이나 봉사업무적절성에 대해서는 보통이상으로 높은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1년 이상은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지하며 봉사에 참여할 때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간호대학생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Lee[13]는 양적인 측면보다는 질적으로 안정된 수준에서 봉사활동이 이루어져야 지속적인 봉사활동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Yang[29]은 참여동기와 만족도가 봉사지속의지에 중요한 요인임을 설명하였다. 도덕성과 봉사업무적절성이 봉사지속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임을 비교할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으므로 이에 대한 반복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결론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도덕성, 봉사업무적절성, 봉사지속의지를 확인하고 봉사지속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조사하였다.

도덕성, 봉사업무적절성, 봉사기간, 적극성이 봉사지속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수는 없으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봉사지속의지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대학생의 도덕성이나 봉사업무적절성이 보통이상이라는 점과 봉사지속의지의 영향요인임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봉사를 지속하게 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한 만큼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구가 반복되기를 제안한다. 또한 타전공 계열학생에 대한 연구를 통해 타 계열 대학생의 도덕성은 어떠한지 봉사업무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졸업 후에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위한 기반이 되는 연구의 수행을 제안한다.

REFERENCES

- [1] A. Maki, P.C. Dwyer & M. Synder. (2016). Time perspective and volunteerism: The importance of focusing on the future. *Journal of Society Psychology*, 156(3), 334-49.
http://doi: 10.1080/00224545.2015.1090946.
- [2] Y. R. Han, H. J. Lee, H. J. Joo, K. M. Cho, E. J. Kim & S. S. Hwang. (1999). A study on the changing in social interest, motivation and attitud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o voluntary activity after a voluntary program. *Journal of Korean community nursing*, 10(1), 204-226.
- [3] G. H. Shin & S. S. Ok. (2014). The subjective perception type of university student volunteers on volunteer activities.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Social Work*, 29(0), 177-203.
- [4] J. M. Lee & Y. J. Cho. (2017). The impact of participation motivation of university student volunteers on their continuance willingness through self-efficiency and leadership living skill.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1(3), 429-458.
- [5] Ministry of Education (2014).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for activating college community service*. Seoul.
- [6] W. Kim & M. Y. Song. (2007). Participation level of volunteer activities among the college students and policy implications: focused on the relationships among frequency, duration, and degree of participation. *Social welfare policy*, 28(0), 5-29.
- [7] W. Kim. (2011). The relationships between volunteer education, importance recognition, and participation attitudes of volunteer activities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3), 301-329.
- [8] W. Kim & H. K. Oh. (2008). Path analysis of determinants influencing sustainment of volunteer activities among university students. *Social Welfare Policy*, 35(0), 297-327.
- [9] Y. S. Hong. (2002). Determinants influencing voluntary action continuity of college student volunteers.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4(1), 75-97.
- [10] H. S. Park. (2014). *Morality and vocational value formation according to participation in selective volunteering activities of college students*. Doctor's thesis, Dankook University, Yongin.
- [11] H. D. Seo. (2011).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volunteer experience and their citizenship, sociality and morality*.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Yongin.
- [12] T. E. Jung, K. S. Jeon & E. M. Park. (2008). Problems of Korean school education seen from the stand point of enhancement of community spirit.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Society Issues*, 14(1), 469-485.
- [13] A. L. Lee. (2016). A study on effects of the volunteer service the related variables and sustained commitment to the college of healing volunteering - focused on gyeonggi province around the volunteer center -. *The Journal of Korea Society for Wellness*, 11(3), 35-54.
- [14] S. Y. Jeong. (2010).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level of th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of university student volunteers - a case of students in Seoul*.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Seoul.
- [15] J. A. Jung & Y. J. Jang. (2011). A study on attitude and satisfaction of the students in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Journal of Korean Society Dental Hygiene*, 11(5), 649-57.
- [16] M. A. Shin & K. S. Ahn. (2012). A study on satisfaction in major and job esteem based on volunteering experience of college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and nursing. *Journal of Korean Society Dental Hygiene*, 12(6), 1090-1100.
- [17] J. H. Kim & B. H. Kim. (2011). Investigation of the impacts of adolescents' volunteer participation motivation on their satisfaction and leadership living skill abilities. *Journal of the Korea Industrial Information Systems Society*, 16(2), 155-169.
- [18] C. L. Kim. (2016).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sustainability of volunteer activities - Focused on the seven Gangwon-do volunteers urban areas.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32(2), 83-115.
- [19] H. Y. Koo. (2006). The study on how volunteers' empowerment influences their activities' effectiveness. *The Korean Association of Non-Profit Organization Research*, 6(2), 3-39.
- [20] J. H. Lee & H. J. Kim. (2014). The effect of experience received maternal support on volunteer activity durability of university student -revolve around the social work stud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1(1), 73-95.
- [21] H. A. Song. (2014). A study on the university students experience of volunteer activities for the Aged.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41, 1-32.
- [22] J. S. Kang. (2012). Factor analysis of participation motivation, recognition and reward affecting the continuance will of university student volunteer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3(12), 5728-5737.

- [23] H. L. Jo. (1997).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youth volunteer activity. *Journal of Social Welfare*, 31(0), 147-70.
- [24] J. S. Kwon. (1999). *Effect of volunteer participation type on the satisfaction of university student volunteers*.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25] S. E. Bai. (2013). *Study of the factors which influence the durability of volunteer activity : focusing on comparison among organizations*. Doctor's thesis, Myongji University, Seoul.
- [26] H. K. Lee. (2014). Volunteer activity, sociality, and morality in the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4(6), 927-933.
- [27] J. H. Park. (2010). *A study on university student's voluntary work's influence on the quality of Life : focusing on daegu area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 [28] S. J. Kim & M. S. Lee. (2010). Influence of volunteer's participation motive on satisfaction and intention of behavior in national veterans' facility. *Journal of the Aviation Management Society of Korea*, 1, 279-291.
- [29] Y. K. Yang. (2018). Influences of participation motivation and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on continuance willingness of voluntary activiti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24(4), 415-423.

김민숙(Kim, Min S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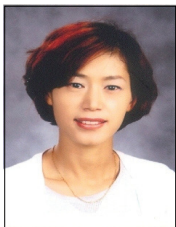
[정회원]



- 2011년 8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 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백석문화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기본간호
- E-Mail : mskim9597@bscu.ac.kr

윤순영(Yun, Soon Young)

[종신회원]



- 2009년 8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 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백석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기본간호, 응급간호
- E-Mail : syb3000@bu.ac.kr